

예수, 마르크스, 老子 사이에서

— 니덤의 생애와 사상 —

송상용
한림대

조지프 니덤(Noel Joseph Terrence Montgomery Needham, 1900-1995)은 아마도 현대의 마지막 르네상스인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는 30대 초반 생화학, 발생학, 형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과학자였다. 이때를 전후해 그는 또한 과학철학, 과학사, 종교, 사회사상에 관한 본격적인 논문과 책을 줄기차게 써 냈다. 니덤은 『평등주의자들과 영국혁명』이라는 역사책을 가명으로 냈고 춤에 관한 논문을 전문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니덤이 그의 생애 후반에 앞의 업적 전체와 맞먹는, 아니 그것을 능가하는 일에 착수 했다는 것이다. 1954년에 첫권이 선보인 『중국의 과학과 문명』(*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프로젝트는 40년이 지난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거의 일을 마치고 삶을 마감했다. 그는 이 업적 때문에 다윈이나 기번(Edward Gibbon)과 비교된다. 화이트 2세(Lynn White, Jr.)는 이 책이 동서 이해를 위해 크게 이바지했으므로 니덤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1

니덤은 의사 아버지와 음악가 어머니의 외아들로 런던에서 태어났다. 그는 늘 싸우는 부모 사이에서 다리를 놓으려 노력하며 자랐다. 그의 일생을 일관한 연결, 타협, 통합의 유형은 이때부터 형성되었다. 니덤은 아운들(Oundle) 공립학교를 거쳐 케임브리지대학의 의학과 신학의 명문 키스 콜리지(Gonville and Caius College)에 들어갔다. 의사가 되려다가 단념하고 생화학을 전공했다. 그는 24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키스 콜리지의 펠로우로 선출되었으며 나이가 두살 위인 생화학자 도러미(Dorothy Mary Moyle)와 결혼했다. 니덤은 학생때부터 중국으로 떠나기까지 22년 동안 홉킨스(Frederick Gowland Hopkins)가 소장으로 있는 Dunn 생화학연구소에서 일했다. 그는 생화학 대학시연자(University Demonstrator)를 거쳐 35살에 생화학 윌리엄 Dunn 부교수(Sir William Dunn Reader)가 되었다.

1937년 니덤의 생애에 전환점을 찍은 일이 일어났다. 연구소에 세사람의 중국인 연구생이 왔던 것이다. 니덤은 그 가운데 루웨이젠(魯桂珍)에게 독어를 가르치다가 오히려 중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그는 중국이라는 전혀 몰랐던 세계를 발견하고 전율했으며 이내 중국문명과 사상에 빠졌다. 2차세계대전 중인 1942년 니덤은 왕립학회 대표로 중국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곳 과학자들을 격려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重慶으로 가서 中英科學協助官으로 일했다. 중국에서 보낸 4년은 외교관이나 선교사처럼 제약을 받지 않고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곳곳의 과학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서 중국을 배웠다. 郭沫若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과 周恩來 등 정치인들을 사귀고 중국과학에 관한 자료를 사 모았다. 이제 그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다. 1946년 유네스코가 창립되고 학슬리(Julian Huxley)가 사무총장이 되자 중국에 있는 니덤에게 자연과학부를 맡아달라고 해 파리에 가 2년 동안 일하고 케임브리지로 돌아갔다. 중국

과학사를 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중세중국의 조선기술에 대해 쓰다가 시간이 되면 강의실에 나가 연체동물의 콜레스테롤대사에 관한 강의를 했다.

그러다가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계속되던 1952년 중공은 미군이 북부중국과 북한에서 세균전을 했다고 비난했다. 세계평화회의가 보낸 국제과학위원회의 일원으로 니덤은 다시 중국을 찾았다. 북한에도 들어간 니덤은 생물학적 증거는 빈약했으나 세균전 비난이 허위가 아니라는 긍정적 보고를 냈다. 위원들은 양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결론을 낸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니덤 자신은 중국 과학자사회에 대한 우정의 표시로 참여했다고 변명했지만 그는 격렬한 비판의 회오리에 파묻혔다. ‘공산주의 선전에 잘 속는 얼간이’, ‘과학을 정치에 예속시킨 바보’라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케임브리지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고 미국 CIA의 블랙 리스트에 올라 비자를 못 받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

니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와 도가사상이었다. 그 배경을 알아보자. 니덤의 아버지는 영국국교 가톨릭과의 옥스퍼드 운동의 주요 인물이었으나 뒤에는 웨이커 신비주의에 끌렸고 끝내 철학적 신학에 기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교회에 보내 수학자 반즈(E. W. Barnes) 주교의 설교를 듣게 했다. 그것은 설교라기보다 멋진 강의였는데 그노시스파(Gnostics), 마니교(Manicheans), 대승불교, 18세기 이신론 등 다양한 내용이었다.

니덤이 몸담은 생화학연구소는 압도적으로 좌익 분위기였다. 흠킨즈는 손해를 보면서도 과학연구협회의 회장을 잠시 지냈고 니덤도 처음부터 그 회원이었다. 니덤이 사회주의자가 된 데는 짧은 역사가 있다. 부르주아 집안에서 자란 니덤은 13살 때 아버지와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외(Eu)에서 철도원의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충격을 받았다. 노동계급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었던 것이다. 중학에 다닐 때는 역에서 기관사들과 사귀어 그들의 생활을 알 수 있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니덤은 볼셰비키혁명이 좋은 것이라 말해 보수적인 아버지를 놀라게 했다. 당시 그는 마르크스는 아직 읽지 못했으나 웰즈(H. G. Wells)나 쇼(Bernard Shaw)의 영향을 받아 이미 사회주의자가 되어 있었다. 대학에서는 관심이 주로 철학적·신학적이어서 정치토론에 말려들어가지 않으려고 좌익단체에 가입한 일이 없다. 그러나 그는 막연히 진보적이었고 국가의료체제를 열렬히 지지했다. 1925년 니덤은 도러시와 함께 브르타뉴의 로스코프해양생물학연구소에서 연구할 때 만난 리투아니아 유대인 랩킨(Louis Rapkine)을 통해 마르크스의 고전에 접하게 되었고 커다란 사상적 전환을 겪었다.

이 무렵 니덤 내외는 에섹스에 있는 색스티드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는 지상천국을 실현하자는 그리스도교 사회주의로 유명한 데였다. 이제 그는 확고한 그리스도교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사적 유물론, 계급투쟁은 신이 사회진화를 통해 일하는 것을 아는 것이므로 그리스도교도는 마르크스주의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고 믿었다. 뒤에 그는 신학자 레이븐(Charles Raven), 마르크스주의자 루이스(John Lewis)와 함께 「그리스도교와 사회혁명」을 편집했다.

니덤의 사회주의는 1926년의 총파업에서 가속화되었고 경제파탄, 대량실업을 거쳐 1933년 나치의 집권에서 완성되었다. 니덤은 1931년 총선거에서 노동당 대학·지역 지부에서 활동했고 4년 뒤에는 노동당 산하 사회주의연맹의 지부장이 되었다. 그는 케임브리지 과학자 반전그룹에 참가하는

가 하면 과학연구자협회의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스페인내란 때는 바스크 피난민들을 위한 모금, 공화군에 대한 의료지원과 연설, 집필로 인민전선을 위해 일했다.

그 사이에 1931년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 런던에서 제2회 국제과학기술사회의가 열렸다. 니덤은 과학사학자 싱어(Charles Singer)의 권유에 따라 호그븐(Lancelot Hogben)과 함께 조직위원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거물 정치인 부하린(Nikolai Bukharin)을 단장으로 한 소련대표단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거기서 물리학자 게슨(Boris Gessen)은 “뉴턴의 ‘프링키피아’의 사회·경제적 근원”이란 논문을 읽었다. 그는 ‘프링키피아’(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가 당시의 항해에서 제기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씌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

게슨의 논문은 뉴턴뿐만 아니라 16, 17세기의 ‘과학혁명’을 설명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에 따르면 부르주아지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학이 필요했고 과학은 부르주아지의 번영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했다. 근대에 들어와 상업자본주의가 일어나면서 교통, 공업, 채광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그 해결을 요구했는데, 신흥 부르주아지의 대표자 뉴턴이 ‘프링키피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원리를 체계적으로 썼다는 것이다.

경제공황과 파시즘의 대두를 배경으로 나타난 이 단순주의적 경제결정론은 러시아혁명에서 깊은 인상을 받고 자라난 영국의 젊은 좌익 과학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1920년대에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들로서 니덤 말고도 버날(J. D. Bernal), 블랙킷(P. M. S. Blackett), 홀데인(J. B. S. Haldane), 호그븐, 학슬리, 스노우(C. P. Snow), 레비(Hyman Levy), 소디(Frederick Soddy), 왜딩턴(C. H. Waddington), 피리(N. W. Pirie) 등이었다.

니덤은 30년대 공황기의 정책과 전술을 위한 현실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이데올로기와 낭만적 인상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에 입문한 20년대 세대였다. 그는 정치적 실천보다는 과학을 위해 변증법을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변증법이 다른 형태의 인간 오성을 무시하는 것을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종교가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다. 30년대 좌익 과학자 친구들이 모두 불가지론자 내지 무신론자였는데 유독 그만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수했다. 그리고 그는 마르크스주의와 그리스도교가 양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뒤에 중국과학의 해석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니덤은 독단이 덜한 비정통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는 모든 점에서 공산당원으로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버날과 매우 대조적이었다.

니덤은 그가 과학자인가 역사학자인가 하는 물음에 ‘명예로운 도사’(honorary Taoist)라고 답한 일이 있다. 그는 1973년 홀로렌쇼(Henry Holorenschaw)라는 가명으로 쓴 짤막한 자서전의 제목을 “명예로운 도사 만들기”라고 붙였다. 그가 중국사상에서도 특히 도가사상에 심취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도가철학이 그리스도교의 역설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주장, 자발성, 자연성의 믿음, 자연신비주의에 끌렸다.

그는 중국과학을 양극으로 나누었다. 지배계급의 남성적인 유가사상에서는 치수, 역법 같은 엘리트학문이 나오고 피지배계급의 여성적인 도가사상에서는 화학, 광물학, 식물학, 약리학 따위의 민중기술이 나온다는 것이다. 니덤은 말할 것도 없이 후자를 좋아했다. 니덤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집착하면서도 과학자로서 무신론자들과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 중국전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에피쿠로스와 루크레티우스가 老子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같은 비정통사상인 마르크스주의와 도가사상이 통하기 쉬웠던 점도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3

「중국의 과학과 문명」이 나오기 시작한 1950년대만 해도 압도적인 반공분위기 때문에 니덤은 고립되고 행동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제2권 「과학사상사」는 중국학과 과학사학계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함에 따라 니덤에게 거부감을 보이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보게 되었다.

니덤은 이미 1941년에 왕립학회 회원(FRS)이 되었지만 도러시와 함께 유일한 부부회원이었고 1971년에는 인문학계의 최고 영예인 영국아카데미 회원(FBA)마저 차지했다. 그의 모교 키스 콜리지는 1965년 그를 학장으로 뽑아 11년 동안 특권을 누리게 했다. 그는 미국과학사학회의 사튼 메달(Sarton Medal)을 받았고 국제과학사·과학철학연합(IUHPS)의 회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中國科學院과 中國社會科學院의 종신 명예교수를 지냈고 일본의 福岡文化賞을 받았다. 마침내, 니덤은 1992년 '오더 어브 더 컴패니언즈 어브 오너'(Order of the Companions of Honour) 회원에 지명되었고 일리저베스여왕에게 회원증을 받았다. '오더 어브 메리트'(Order of Merit)에는 미치지 못해도 작위보다는 높은 영예였다.

그러나 니덤의 만년에는 불행한 일도 많았다. 그가 찬양했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실패는 고통이었다. 그래도 그는 鄧小平의 개혁을 지지했고 개혁파 당 총서기 胡耀邦을 실각 직전 찾아가 만났다. 그는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지켜 보았다. 그는 사회주의자로 일관했으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를 받아들였다. 天安門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번에도 니덤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학생들 편에 섰다.

말년의 니덤은 관절염과 파킨슨씨병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1987년 도러시의 죽음은 그에게 큰 타격을 안겼다. 2년뒤 그는 60년 가까이 친오빠처럼 그를 보살펴온 루와 재혼했다. 신부의 나이는 85살이었다. 1990년 니덤의 90회 탄신을 기념하는 동아시아 과학·기술·의학사학회가 케임브리지에서 열렸을 때 그들은 생애의 절정에 있었다. 2년만에 투도 세상을 떠났다. 루를 화장한 채는 니덤이 세우고 명예소장으로 있던 니덤연구소 앞뜰에 뿌려졌다. 1995년 3월 23일 니덤은 늙하듯이 연구소에 나와 사무처리를 하고 집에 돌아갔다. 저녁때 뇌에 가벼운 마비가 왔다. 이튿날 세기의 거인 니덤은 영원히 눈을 감았다.